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북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음 10월 5일) 제24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쉽 없는 국가예산 확보 추진

전북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해상풍력 산업지원 구축 등 송하진 도지사, 내년도 예산 반영 주요 사업 필요성 설명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시급한 현안 국회 통과 논의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컨스텐트호텔에서 열린 전북지역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여의도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20년 국가예산 7조원대 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하고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기재위원장,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바른미래당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김광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김광수 의원, 김중희 의원, 이용호 의원 등 원내 의원 대다수가 참석해 여야 구분 없이 전북을 위한 한마음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고히 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51억원,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 14억원, 시장 주도형 드론 소재부품 산업 육성 10억원 등 예산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랑스러운 전북 역사문화 연구 복원을 통해 전북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 콘텐츠를 육성하고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전라 전라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원,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5억원 등 반영을 피력했다.

또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52억원, 향토 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5억원, 군산-어정도항로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22억원 등 국회단계 예산 반영 건의와 도로·항만 등 새만금 핵심 기

반시설 구축으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개 선석 조성에 필요한 76억원, 세계잡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비 35억원, 호남고속도로 삼례C~김제C 확장 30억원 등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급한 전북 현안으로 법률 제·개정(지역지원시설세 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지원시설세 개정)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위하여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율리,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

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우리도 중점 SOC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연고 국회의원회와 예정 위 수석전문위원 등 주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만나 연고 국회의원들에게는 해당 연고지 사업으로 군산 가변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 사업 45억원 등 4개 사업, 해당 상임위 사업으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 5366억원 등 5개 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에게는 해당 상임위 3~5개 사업을 설명하는 등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통과

친환경자동차로 12일 총리 주재 특구위서 최종 지정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 배심원(연륜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광주, 울산, 제주 등 8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심의했고, 최종 지정은 11월 12일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특구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울산 수소·3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자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이고, 주로 친환경미래차·주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기자단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하여 8개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고, 배심원단 평가결과 및 그간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위치·면적의 적절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공청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하였으며,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가(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와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의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또한 지난 11일 전북도는 특구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민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군산 지역구 의원인 김광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전북의 특구지정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응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4면 - 솔로시티 전주, 세계가 주목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주택을 공급해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에 소개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LH토지주택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전주시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발표했다.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는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컨퍼런스로, 이날 11월 1일 이틀간 주거복지 현장 실무자·학계·연구자·국토교통부·LH·지자



체 관계자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김 시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부터 주거지 재생까지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주거복지와 신설 등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형 정책 전국에 소개

의 변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신설 ▲전주형 주거복지 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구축·운영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개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 공개 ▲지역기반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국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추진 ▲단독·연립주택 관리소 해피하우스 운영 확대 ▲주거복지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자

원연계·상담·홍보강화로 주거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그간 펼쳐온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 사례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올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 융복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 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부서인 '주거재생팀'을 신설하고, 주거재생총괄계획이 제도를 도입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거지재생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그간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오고, 사람·생태·문화가 녹여든 도시재생과 결합한 주거지재생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의 주거복지를 이끌고 있는 도시로 인정받아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도시정책 공론의 장에서 전주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한 초청이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김 시장은 지난 6월 열린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초청돼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과 사회주

택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로 인정 받았다.

김승수 시장은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시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의 주거복지 소임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임실은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숙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큰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띄고 있습니다. 세척부터 유통까지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ilin.kr

2019 제4회 임실아삭아삭 김장 FESTIVAL 2019. 11. 9(토) ~ 1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광장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임실 고추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 세척고추, 고춧가루